

## 제목: 머무리다: 자유

논제: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성경을 읽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구절: 이사야 58:6

이 시리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리즈를 계획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는 주석적인 시리즈를 원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구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설명 시리즈를 원했습니다.

오늘 나의 희망은 성경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어떻게 성경을 읽나요?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영감을 주면서도 매우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더 매끄럽고 이해하기 쉬워지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다. 해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동시에 세상에는 여전히 성경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성경을 위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싶어야 하지 않을까?

지난 주에 우리는 정보 센터에서 새 성경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성경에 나오는 책과 저자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의 전체 스펙트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며 때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모두들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석이란 무엇입니까?

석의는 질문하기, 문맥 학습, 문화 이해, 시제 및 문장 구조 파악을 포함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 방법입니다. 종종 귀납적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주석은 일요일 아침에 영감을 주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대화 외에 성경의 역사, 전통, 타당성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단지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신학과 적용에 관한 질문을 합법적으로 물을 수 있기 전에 주석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시된 말씀의 보고이다.

주석을 수행하는 방법

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텍스트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사야 5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말한다,

“내가 선택한 단식은 불의의 결박을 끊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텍스트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1- 규범적.

2- 설명.

3- 교정.

이 경우, 우리는 우리가 쓴 한 구절 밖에서 그 주위의 구절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Bo의 메시지를 다시 기억하시거나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우리 웹사이트에서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구절의 맥락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압니다.

장소: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앗시리아가, 곧 남쪽에서는 바벨론이 침략하는 땅입니다.

사람: 이스라엘. 망명과 방황, 그리고 많은 질문의 역사를 지닌 민족,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우리의 구절은 남쪽 왕국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길을 간다면 그들의 운명은 북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야웨가 당신을 그렇게 부르신 방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것이 교정적이고 규범적인 텍스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정: 이것이 당신의 방식이었습니다.

규범적: 이것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번역, 본문 비평, 기타 역사적, 학술적 자료를 살펴보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2단계:** 장르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 작가들이 수년에 걸쳐 쓴 다양한 유형의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그림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약: 예수 이전, 신약: 예수 당시/이후

이사야서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책이자 대선지서이다. 예언에 관해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예언이 항상 미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둘 다일 때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이 받은 말씀의 적용을 항상 아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OT)는 역사를 마치 노 젓는 배를 탄 것처럼 보았습니다. 미래를 되돌아보고 일어난 사건을 연구합니다. 그리스 문화(주로 신약 기록의 번역)에서 우리는 시간을 선형적으로 본다. 우리는 항상 앞으로 다가올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시간과 역사가 정말 아름답게 혼합된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때로는 둘 다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과거를 더 잘 이해하고, 현재의 의미를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은 당신의 영을 천국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당신의 영혼을 여는 것입니다. 영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영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십시오.

이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5절에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천국을 나타내시느니라

이제 우리는 장르-예언적 내용을 알았습니다. 역사적 맥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단계:** 역사적-문화적 맥락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한 단식은 불의의 결박을 끊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누가 억압을 받나요? 억압자는 누구인가?

불의는 무엇입니까?

멍에란 무엇입니까?

불의 대신 사악함을 말하는 성경 버전이 있으며, 직장 환경과 근로자 처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들이 부당하게 투옥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으며,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셨고, 결국에는 그들의 악한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교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주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야웨 에 대한 숭배와 이교 숭배를 혼합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적 맥락이다. 좀 말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들은 금식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나를 위한 것.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사람들의 인간성에 대해 덜 신경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6절에서 볼 수 있는 변화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금식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천국문화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틀을 주시으로써 선과 우리에게 좋은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들을 식탁으로 가져오고 우리가 갖고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위대한 일들과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을 하나님과 물물교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단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를 제공합니다.

자기 일꾼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그들이 진정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우리는 4단계로 넘어갑니다.

**4단계:**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자는 왜 이것이 알려지기를 원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시리즈 후반부에서 다루겠지만 58장은 거리를 수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요청입니다. 이는 무너진 것을 온전하게 하며 사람들이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거할 처소를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6절은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따르는 특유의 변화되는 마음의 역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것을 밝히고 참된 삶의 길을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의도하신 공동체에 대한 끌림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요점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단식은 불의의 결박을 끊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풀고, 풀고, 자유롭게 하세요.

여기에는 자유의 진보가 있습니다

밧줄이 너무 뻑뻑해서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루프를 끊고 느슨해질 때까지 밀고 당깁니다.

그러면 실제로 풀어야 합니다. 끝을 찾고, 얽힌 것을 풀고, 끈게 펴야 합니다. 자유. 더 이상 한때 포로로 잡혀 있던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멍에를 부수라고 합니다.

멍에는 일을 하기 위해 쟁기의 앞쪽에 동물인 소를 매는 데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멍에가 부러진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단계는 이 구절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묻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자유라는 주제를 인식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11:28-30과 병행하여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30**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NIV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비유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예언의 성취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서로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이익과 낮은 비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나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옳다고 느끼기 위해 약간의 영성을 섞는 것입니까?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까? 아니면 같은 질문을 하시나요? 나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해왔지만,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했고, 금식했지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그럴듯 혼란스럽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을 바로잡는 데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이 경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깝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립한 대로 그들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식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일부 종교적 관습에서는 자신을 비우는 것이 주요 초점입니다. 기독교에서 자기를 비우는 실천은 성령 충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기 위해 실제로 타락의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 자신의 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5단계로 넘어갑니다...

#### **5단계:** 신학적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을 주님으로 삼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의 길에 복종하고 그것이 참되고, 선하고, 옳고, 아름답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공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사랑으로의 부르심은 따뜻한 감정이나 추상적인 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희생적 행동에 뿌리를 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명철한 행동입니다.

#### **6단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자유가 선지자의 부르심, 즉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교정받고 가르쳐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부르심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서 구절에서 그것들을 정확히 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올바른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그분과 그리고 서로간의 올바른 관계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씨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39-40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는 말한다,

“너희가 경전으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도다. 이것은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우리가 공부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 인류를 돌보시며 부서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모든 역사는 그분을 가리키고, 그분을 기대해 왔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과 그분의 왕국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영두에 두고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포기하는 예수님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정의와 자유, 멍에를 깨는 것의 절대적인 정점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재판을 받고 처형되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가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오늘 함께 성찬을 나누고 싶다면 요소를 잡아주세요. 들어가는 길에 하나도 잡지 못했다면, 손을 올리면 누군가가 하나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잠시 고요함을 연습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눈을 감아보세요. 몇 번 심호흡을 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당신을 포로로 잡고,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소비했던 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일로부터 자신을 비워보세요.

마음이 편안하다면 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붙잡고 있는 것 중 당신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비워주소서.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우리는 빵을 듭니다.

자유를 묵상하며 우리는 잔을 받습니다.

편안하시다면 저와 함께 서서 마지막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왕국은 선히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 나의 구원자, 나의 친구이신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위로자요 돕는 자이신 성령께 감사드립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번주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금식에 대해 깊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식을 요구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롭게 가십시오.